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01 / 소수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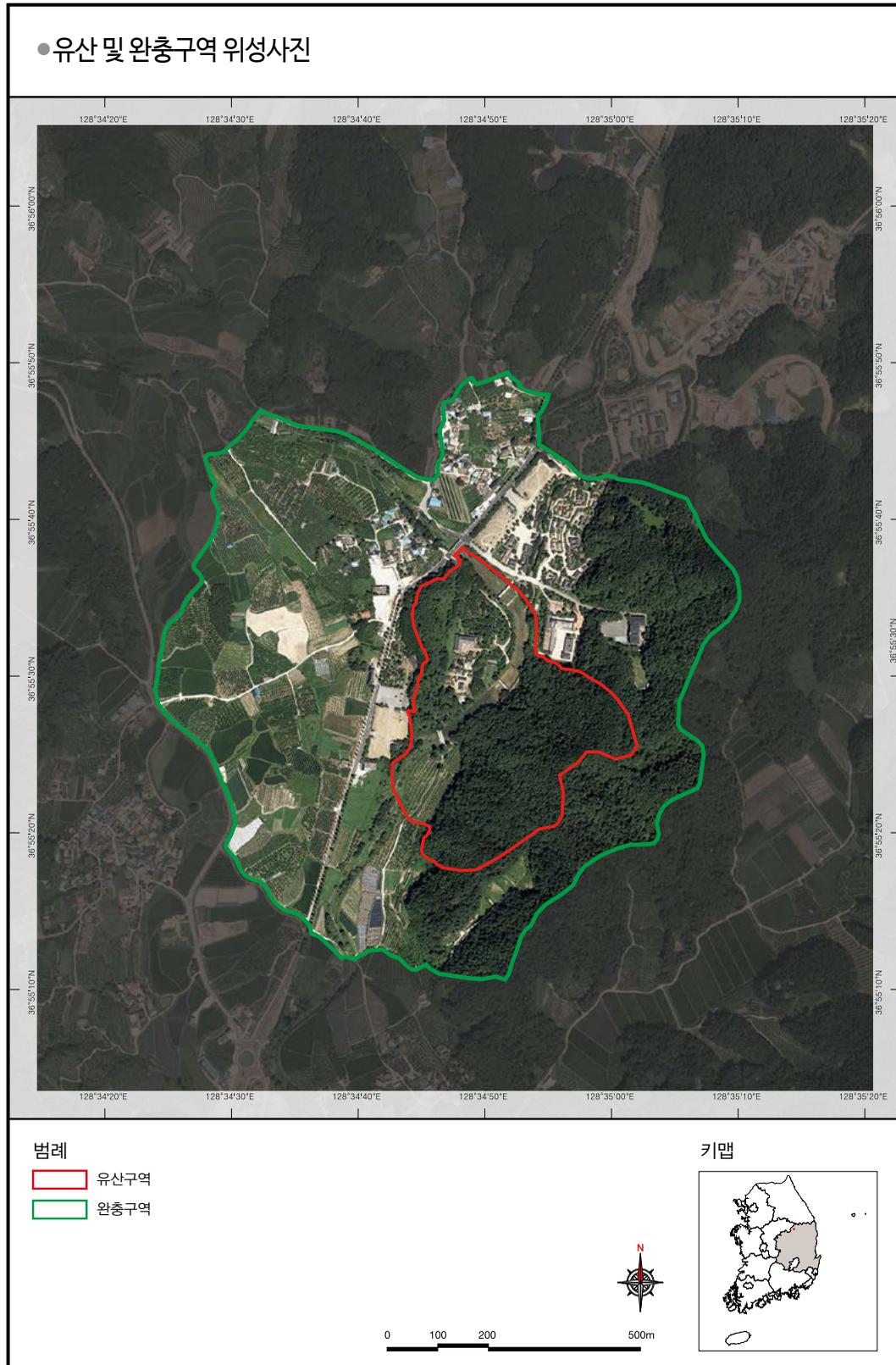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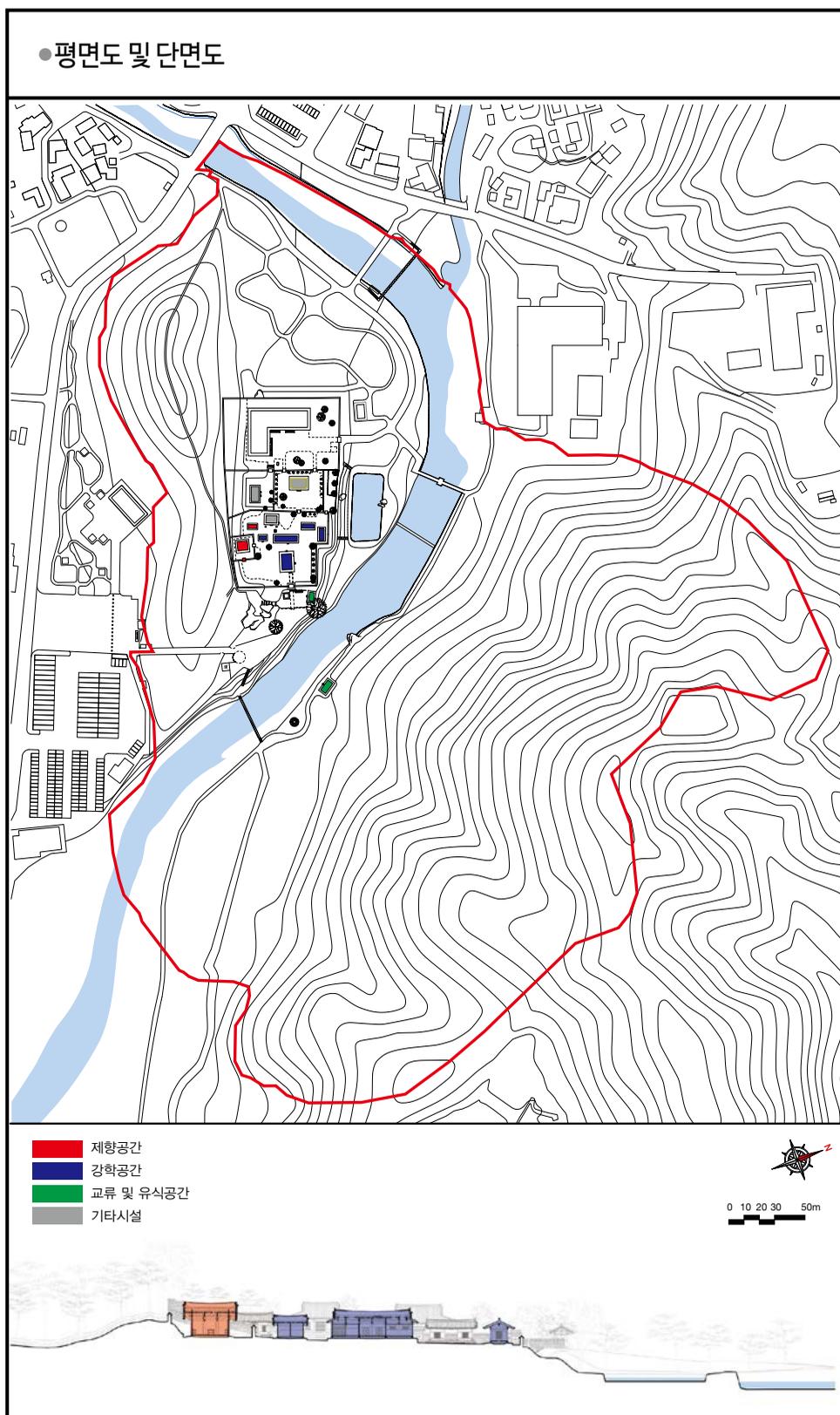
기록유산, 무형유산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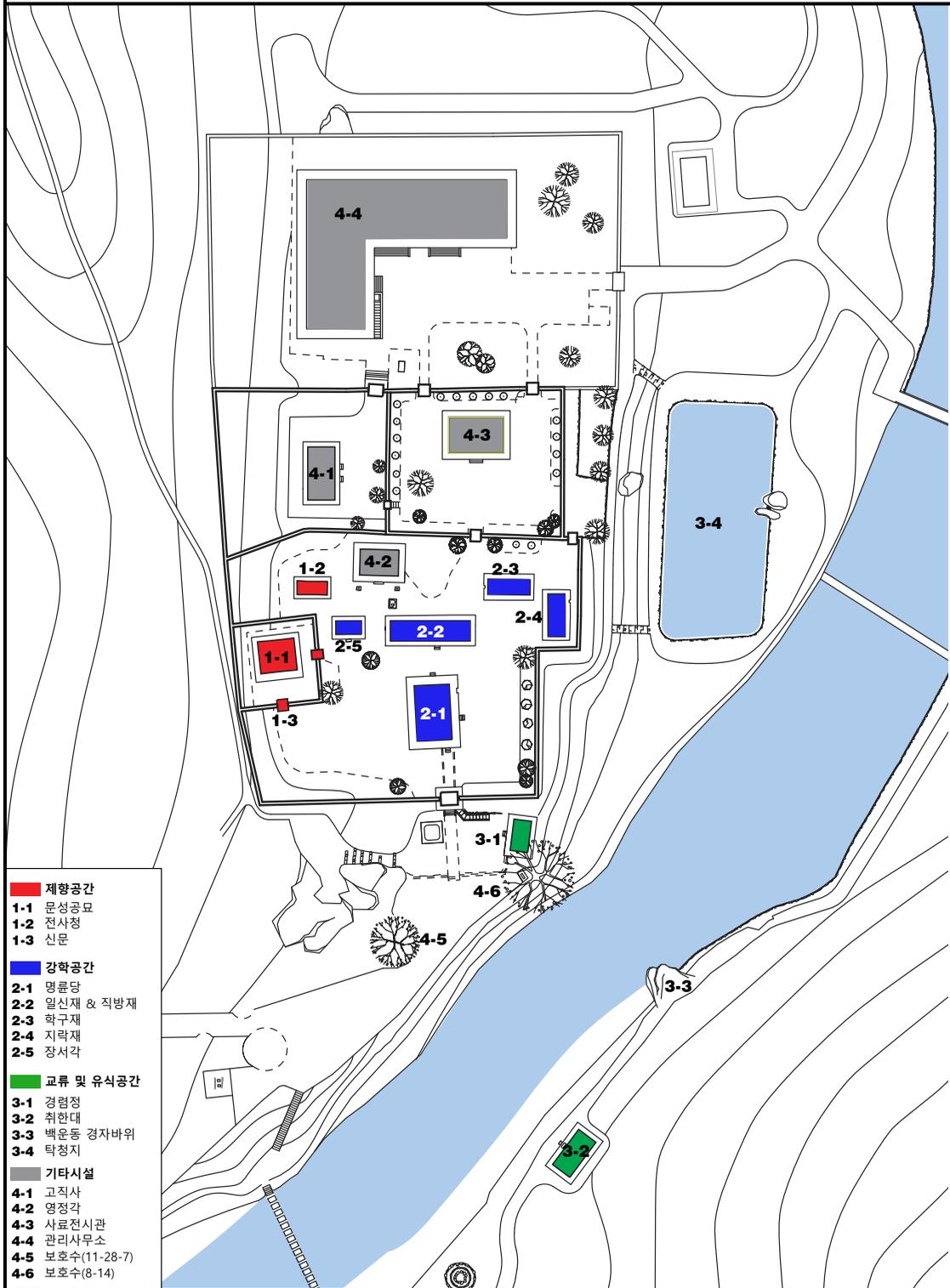
04.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 소수서원





● 배치도



1) 건축물

제향공간



1-1

1-2

1-3

문성공묘(1-1)

보물 제1402호. 1542년(중종 37) 짓기 시작하여 1543년(중종 38) 5월 초8일에 상량하였다. 제향인물의 영정 및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안향을 비롯하여 안축, 안보, 주세붕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이며 장대석으로 마무리한 낮은 기단 위에 둥글게 다듬은 주좌(柱座)를 놓고 배흘림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에 주두를 놓고, 첨차를 내어 그 위에 소로가 주심도리의 장혀를 받치고 있다. 보 방향으로는 쇠혀(우설(牛舌))를 내고 안쪽으로는 보아지 모양을 하여 뒷간의 보를 받치는 초익공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구는 5량으로서 대들보를 전면 고주(高柱)와 후면 평주 위에 걸고, 첨차로 짜인 등자기둥을 놓아 종보를 받치고, 이 위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맞배지붕의 양측 박공에는 풍판을 달았다. 건물의 좌측과 뒷면에 장대석으로 축대를 쌓았으며, 사방에 돌담을 두르고, 정면에 외단문을 설치하고 우측에 협문을 두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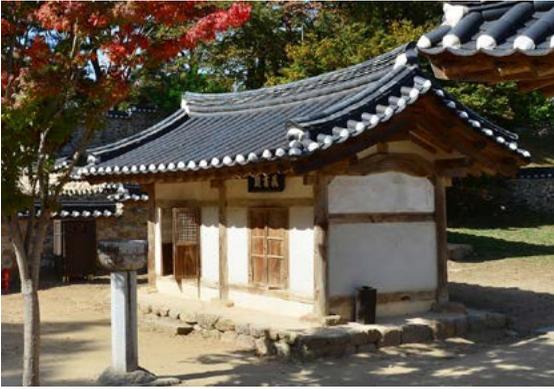
전사청(1-2)

제향과 관련된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문성공묘 창건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1-3)

제향공간의 신문이다.

강학공간



- 2-1
- 2-2
- 2-3
- 2-4
- 2-5

강당: 명륜당(2-1)

보물 제1403호. 1543년(중종 38) 창건되었고, 1651년, 1719년, 1782년 중건되었다.

강학당은 서원 기록에서는 주로 '명륜당(明倫堂)'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강론 및 통독, 당회를 여는 강학 공간의 중심 건물이다.

장대석의 높은 기단을 쌓아 그 위에 자연석을 다듬은 초석을 놓았으며,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겹처마로서 웅장하면서도 고색이 잘 간직되어 있다. 사방 둘레에 너비 1m 정도의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툇마루 가장자리는 높이가 6.5cm, 높이 8.5cm의 턱을 두었고, 기단 네 모서리에 추녀를 받는 활주를 설치하였다.

정면 4칸 중 좌측 3칸은 마루이며, 우측 1칸에는 방 2개를 설치하였다. 기단 3면(정면, 우측, 좌측)에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굴뚝은 마루 밑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처리하였다. 기동 윗몸에서 양서 하나를 내어 기동 위에 놓인 주두와 결구시킨 초익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구는 5량으로 대들보를 앞뒤의 평주 위에 걸고, 이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를 받치고, 종보 위에 파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건물은 남북으로 길게 동향하여 있으며, 서원 입구에서 바로 강학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남쪽 기단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강학당의 정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서원입구에서 바로 강학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남쪽 기단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내부 대청의 북면에는 명종의 친필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편액이 높이 걸려있고 정문을 면하여 '백운동(白雲洞)' 현판이 있다.

재사: 일신재, 직방재(2-2)

일신재(日新齋)와 직방재(直方齋)는 강학당 북쪽에 위치한다. 직방재는 최초 건립연도가 분명하지 않으나, 백운동서원 창건 당시 명륜당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05년(순조 5) 본래 결방이었던 신방(新房)이 확정되어 일신재로 독립되면서 연립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 건물은 원장, 교수 및 유사(有司)의 집무실 겸 숙소로 각각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해당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강당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서원에서는 하나의 연속된 채로 건립하여 편액(扁額)을 달아 구분하고 있다.

재사: 학구재(2-3), 지락재(2-4)

'ㄱ'자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구재와 지락재는 학생들이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한 건물이다. 학구재는 1730년(영조 6) 동몽재(童蒙齋)를 중수하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락재는 1614년(광해군 6) 풍기군수 이준(李峻)이 세웠다. 앞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각(2-5)

서원의 강학활동과 관련된 교재와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보존관리를 위해 소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3-2

3-3

3-4

경렴정(3-1)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정자이다. 사면에 주세붕의 경렴정 원운(原韻) 시판과 이항 외 여러 명의 차운 시판이 걸려 있다. 정자 이름은 북송의 학자 염계 주돈이를 경모한다는 뜻이다.

취한대(3-2)

경렴정 건너편 연화봉 아래에 있다. 퇴계 이항이 풍기군수 부임 이듬해인 1549년(명조 4) 3월에 백운동 서원을 찾아 잡초를 걷어내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잣나무·소나무·대나무를 심고 명명한 것이다.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정자이다.

백운동 경자바위(3-3)

경렴정 맞은편에 위치하며, 성리학 개념의 하나인 ‘경’을 석각하였다. 경렴정에서 죽계천을 포함한 자연을 감상하면서 성리학적 의미를 깨닫도록 조성하였다.

탁청지(3-4)

서원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된 인공 연못이다. 1614년(광해군 6)에 풍기군수 이준(李峻)의 명에 따라 원장 광진이 주관하여 지락재 아래에 조성하였다. 2001년도에 영주시에서 발굴 조사를 하여 복원하였다.

기 타



4-1	4-2
4-3	4-4
4-5	4-6

고직사(4-1)

전사청 담장 뒤편에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영정각(4-2)

소장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5년 신축한 목조 건물이다.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서원 및 서원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료전시관(4-3)

서원의 역사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이다.

관리사무소(4-4)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건물이다.

보호수 11-28-7(4-5)

약 500년된 소나무(학자수)이다.

보호수 8-14(4-6)

약 500년된 은행나무이다.

2) 기록유산·무형유산

| 고문서 |



소수서원입원록 紹修書院入院錄

▪년대: 1543~1696년 ▪크기: 25.5×36.0

1543년(중조 38) 창건 이후 1696년(숙조 22)까지 154년 동안 소수서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이다. 입학 연도별로 자(字)와 거주지가 병기되어 있다. 원생이 과거에 합격한 경우는 과거의 종류와 연도도 기재되어 있다. 16~17세기 서원 원생들의 사회적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임사록 院任事錄

▪년대: 1542~1718년 ▪크기: 39.6×25.4

원장(院長)과 유사(有司) 등 소수서원 원임(院任)을 역임한 인사들의 성명과 재임 기간이 기록된 문서이다. 소수서원의 운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20세기 것까지 총 7책이 보존되어 있다.



운원잡록 雲院雜錄

▪년대: 16~17C ▪크기: 22.0×30.0

소수서원 창건 초기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서원에서 생성된 기록물과 기사를 망라한 자료이다. 지방관들의 물품 공여(供與) 기록, 서원 건물 보수 기록, 서원에서 결의한 입의(立議)·완의(完議), 각종 통문(通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수서원전답안 紹修書院田畵案

▪년대: 1767년(영조 43) ▪크기: 미상

소수서원의 토지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당시 소수서원의 토지는 순흥부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고, 인근의 안동, 영천, 풍기에도 분포해 있다. 18세기 전답 규모는 19결 정도인데, 18세기 말에는 25결 정도로 증가했다.



잡록 雜錄

- 년대 : 1720~1759년(1책), 1759~1832년(2책)
- 크기 : 29.0×23.5(1책), 33.4×22.2(2책)

1720년(숙종 46)부터 1832년(순조 32)까지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정리하여 수록해 놓은 것이다. 서원 건물 보수와 관련된 기록이 가장 많고, 그 외 서원 노비와 토지의 소유 문제를 둘러싼 기사, 소수서원 원장 임명과 관련된 기록, 각종 통문(通文) 등이 수록되어 있어 소수서원 운영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강소잡록 講所雜錄

- 년대 : 1826~1828년
- 크기 : 28.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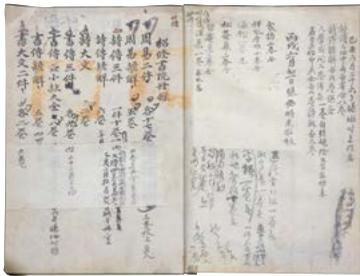
1826년(순조 26)부터 1828년(순조 28)까지 소수서원에서 치러진 강학과 관련된 기록이다. 소수서원 원생들은 가을과 겨울 거재(居齋)하면서 학문을 공부하였고, 봄과 여름 백일장을 치르거나 과거 공부인 거접(居接)을 시행하였다. 원생들은中庸(中庸)과 함께 과거 과목인 시문과 제술을 공부하였으며, 강회가 끝난 후 소백산을 유람했다는 기록도 있다.



소수서원노비안 紹修書院奴婢案

- 년대 : 임오년
- 크기 : 33.0×22.0

소수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노비 명부로 임오년(壬午年)에 작성된 것으로 1책 29장이다. 일반 족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계를 볼 수 있으며, 출생년, 거주지 등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당시 소수서원의 노비 소유 규모와 관리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서원책록 書院冊錄

▪년대: 기축년 ▪크기: 32.5×22.0

소수서원 소장 도서의 목록으로, 각 도서별 권수와 소장 위치를 상세하게 기재해 놓았다. 반출하였다가 반납하지 않은 도서 목록과 대여자 성명, 책을 포쇄한 기록도 적혀 있다. 연대는 기축년으로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소수서원 도서 관리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귀중자료이다.



서원등록 書院登錄

▪년대: 1546~1670년 ▪크기: 45.0×37.5

1546(명조 1)~1670년(현종 11) 사이에 소수서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각종 사실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다. 건립 초창기인 명종대의 기록이 대부분으로 1546~1547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546년 경상도 각 고을에 서원 운영 경비와 물자를 배정한 기록과 1547년(명조 2) 경상도 관찰사(觀察使)가 작성한 입의(立議)는 소수서원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당시의 서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심원록 尋院錄

▪년대: 기유년 ▪크기: 47.0×29.0

소수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의 방명록으로 방문자의 성명과 본관, 방문 일자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심원록에 기재된 인사들의 면모를 통해,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사회적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 책 및 책판 |



죽계지 竹溪志

▪년대: 1554년(명종 9) ▪크기: 32.0×21.0

죽계지(竹溪志)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지로서, 1554년(명종 9) 주세붕이 편찬하였으며 초간 이후 몇 차례 중간되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관한 각종 기록을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창건과정, 배향 인물, 특히 소수서원이 16세기에 소장했던 서적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한국서 원의 장서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6권 3책본과 3권 1책본, 5권 1책본 등이 전해진다.



죽계지 책판 竹溪志 冊板

▪년대: 19세기 ▪크기: 22.5×35.0

소수서원에는 죽계지(竹溪誌) 책판 117장이 소장되어 있다. 본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편찬, 간행한 것을 1803년(순조 3년) 안향(安珦)의 후손 안시중(安時中)·안정진(安鼎鎭) 등이 다시 3책(冊)으로 간행하였는데, 1824년(순조 24) 안향의 20대손 안병렬(安炳烈)이 안향(安珦)에 관한 기록을 모아 회헌실기(晦軒實記)를 간행한 뒤 부록으로 삼기 위하여 책판을 새겼다.



여어편류 儷語編類

▪년대: 16세기 ▪크기: 27.0×17.7(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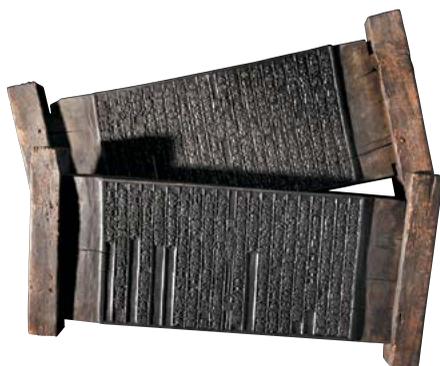
명나라 조인규(趙仁奎)가 편찬한 책으로 16세기 중엽에 갑진자로 간행되었는데 소수서원 소장본은 그 중 1책 권18이다. 책의 우측상단부에 ‘백운동문성공묘서원상(白雲洞文成公廟書院上)’이라는 글이 필사되어 있고, 우측 하단부에는 소장인과 ‘내독원 물출가(來讀院 勿出家)’라는 글이, 그리고 권말의 좌측 하단부에도 소장인과 ‘내독원중 물출원문(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는 글이 필사되어 있다.



가례언해 책판 家禮諺解 冊板

- 년대 : 1632년(인조 10) ▪크기 : 21.5×36.0

가례언해(家禮諺解)는 주자의 가례를 신식(申湜)이 한글로 번역하여 1632년(인조 10)에 간행한 책이다. 전체 10권 4책이지만 책판은 서문(序文)의 4판만 남아있다.



추원록 책판 追遠錄 冊板

- 년대 : 1658년(효종 9),
- 크기 : 20.0×36.5(책판 302장)

추원록(追遠錄)은 순흥에서 세거하던 순흥안씨의 상대 인물에 대한 자료집으로 관련 인물의 사마방목(司馬榜目), 공신교서(功臣敎書), 제문(祭文), 묘지(墓誌), 세계도(世系圖) 등과 해당 인물이 찬(撰)한 시(詩), 서문(序文), 상량문(上樑文) 등 관련된 유적(遺蹟)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판은 간행관련 기록이 목록 뒤에 수록되어 있어서 간행 당시의 활동 인물과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육선생유고 책판 六先生遺稿 冊板

- 년대 : 미상 ▪크기 : 32.5×29.5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는 조선 단종조 사육신(死六臣)인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성삼문(成三問, 1418~1456), 이개(李垲, 1417~1456), 하위지(河緯地, 1412~1456), 유성원(柳誠源, ?~1456), 유응부(兪應孚, ?~1456) 등의 시문집이다. 전체 3권 3책이지만 소수서원 소장 책판은 권제1, 3, 5에서 1장씩만 남아 있다.



무릉잡고 武陵雜稿

▪ 년대 : 1859년(철종 10) ▪ 크기 : 29.5×19.3

무릉잡고(武陵雜稿)는 소수서원을 설립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시문집으로 철종조에 주세붕의 후손 주병항(周秉恒) 등이 도산(陶山), 소수(紹修) 두 서원에 보존된 인본(印本)과 문중에 전래하던 사본(寫本)을 고정(考訂)하고 연보(年譜), 비명(碑銘) 등을 넣어 1859년(철종 10)에 중간한 것이다. 목록 1권, 원집 4권, 별집 4책이 있다.



향례합편 鄉禮合編

▪ 년대 : 1797년(정조 21) ▪ 크기 : 34.5×22.2

1797년 정조가 이병모(李秉模) 등 규장각 각신에게 명하여 향례에 관한 것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정유자(丁酉字)로 주자소(鑄字所)에서 간행하였고, 소수서원 소장본은 하사받은 내사본이다. 책의 표지 이면에는 1797년(정조 10)의 내사기(內賜記), (嘉慶二年六月日 內賜慶尚道順興紹修書院 鄉禮合編一件 直提學臣李〔手決〕)가 있다.

| 현판 및 기문 |



소수서원 紹修書院

▪ 년대 : 1550년(명종 5) ▪ 크기 : 56×130

1550년(명조 5) 퇴계 이황에 의해 조선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을 때 받은 사액현판으로 '소수(紹修)'는 이미 무너져 버린 학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다. 서원의 명칭은 대제학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짓고 글씨는 명종의 어필 이다.



백운동 白雲洞

▪ 년대 : 1610년(광해 2) ▪ 크기 : 47×108

소수서원 강학당(명륜당)에 걸린 편액으로, '백운동(白雲洞)'은 1542년 신재 주세붕이 중국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떠 백운동 서원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편액 좌측에 1610년(광해 2) 봄에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백운서원방 白雲書院榜

▪ 년대 : 1545년(인종 원년 / 명종 즉위년)
▪ 크기 : 45.5×146

1545년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재임할 때 작성한 백운동 서원의 학칙이다. 유생들의 서원 생활규범, 서원 관리 지침, 입학 규정, 학생 명부의 작성 등 제반사항을 정해 놓은 것으로 초창기 백운동서원의 운영 규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백운동소수서원기 白雲洞紹修書院記

▪ 년대 : 1550년(명조 5) ▪ 크기 : 58×253

신광한이 지은 것으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소수서원) 건립 및 경상도관찰사 안현의 부조내용과,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의의를 칭송하였다.



건륭15년입안 乾隆十五年立案

▪년대: 1750년(영조 26) ▪크기: 36.8×61.8

부사 신종하(申宗夏)가 4호(戶)를 소수서원의 사환으로 부릴 수 있도록 증빙해준 문서로 관역(官役) 이외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18세기 소수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소수서원 강학당(講學堂)에 걸려 있었다.



문성공묘 文成公廟

▪년대: 1605년(선조 38) ▪크기: 52×164

소수서원 사우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문성공’은 안향의 시호이다. 글씨는 1605년(선조 38)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서원을 참배하고 쓴 것이라고 하며, 현재 편액은 원래의 것을 모각한 것이다.



백운동안문성공사당기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년대: 1545년(인종 원년/명종 즉위년)
▪크기: 59.5×104

1545년(인종 원년/명종 즉위년)에 성세창(成世昌)이 작성한 백운동서원 사당 기문 으로 성리학을 보급한 안향의 공적을 칭송하고 사당의 창건과정을 기록하였다. 소수서원의 초창기 건립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소수묘우중수기 紹修廟宇重修記

▪년대: 1874년(고종 11) ▪크기: 48×98.4

이의덕(李義憲)이 소수서원 사우의 중수 과정과 의미를 새긴 글로 글씨는 주용호(周龍鎬)가 썼다. 소수서원의 건립 과정과 이를 주도한 선현들의 공적을 칭송한 뒤, 배향자 안향의 후손인 안교환(安教煥) 등이 사우를 중수하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다.



백운동서원령 白雲洞書院令

- 년대 : 1545년(인종 원년/명종 즉위년)
- 크기 : 32×59.7

지락재(至樂齋)에 걸려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칙이다. 학생들에 대한 음식 제공, 서고 출입, 사우 참배자의 예우와 전송 등 기본적인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이후 여러 서원 규약의 모범이 되었다.



직방재 直方齋

- 년대 : 1720년(숙종 46)
- 크기 : 46×120

소수서원 직방재의 편액으로, '직방'은『주역(周易)』에서 인용한 말로 경(敬)으로 내면을 수양하고 의(義)로써 외부적 행동의 판단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이항(1501~1570)이 직접 쓴 글씨가 마모되어 1720년 이진주에게 의뢰하여 개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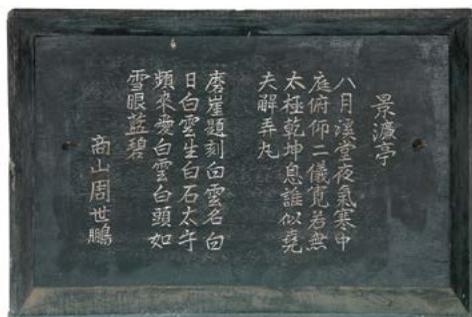


지락재 至樂齋

- 년대 : 조선 후기
- 크기 : 41×95

소수서원에 부속된 지락재의 편액으로, '지락(至樂)'은 송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이 창건하였으며, 원래 이름은 '동몽재(童蒙齋)'였다고 한다.



경림정 景濂亭

- 년대 : 1545년(인종 1)
- 크기 : 27×43

주세붕이 풍기군수 재임시절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경림정을 세운 뒤에 지은 5언 절구의 시다. 산수의 경물에서 군자의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경렴정 景濂亭

▪ 년대 : 1610년(광해 2) ▪ 크기 : 25×43

이항이 주세붕이 지은 시에 차운한 것으로, 이 시 역시 산수 경물에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편역 좌측에 만력 경술년 봄에 문집 속에서 찾아 다시 새긴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항의 처음 시판(詩板)이 마모되어 이때 다시 추각한 것으로 보인다.



백운동 白雲洞 / 경 敬

소수서원을 감싸고 흐르는 죽계(竹溪) 건너 암벽에 새겨진 것으로, 신재 주세붕이 새겼다

죽계 건너 암벽에 '백운동'각석과 위 아래로 나란히 새겨져 있는데, 흔히 '경자바위[경석(敬石)]'라고 한다. '경'자를 바위에 새긴 것은 주자와 안향을 영원토록 공경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주세붕이 새겼다.

| 제향의례 |

도동곡(道東曲)을 부르는 소수서원(紹修書院)

경북 영주에 위치한 소수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安珦)(1243~1306)을 제향하는 백운동서원으로 창건하였고, 퇴계 이황의 노력으로 1550년에 국가로부터 '소수'라는 사액을 받아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한국 서원 제향의 전형을 보여주며, 서원제향 의식(儀式)과 의례(儀禮)를 대표한다.

소수서원 향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 명의 헌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 것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지은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종묘와 문묘를 제외하고 악장을 부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술향아리에 술 담는 봉준(封罇)

소수서원에서는 전사청에서 향사에 올리게 될 술을 산뢰에 담을 때 헌관과 재유사가 산뢰를 향하여 읊하며 예를 갖추다. 술을 다 따르면 한지로 봉하고 한지 위에 '정위(正位)', '차위(次位)'등을 써서 구분한다.

백운동서원규를 읽는 경독(敬讀)

소수서원에서는 재계의 첫 순서로, 중국 송나라 주자가 백록동서원의 문도에게 교시한 백운동서원규를 읽는데, 이 때 제관들은 모두 읊을 하고 서서 경청을 한다.

사우 안에서의 축문 작성

소수서원에서는 대축이 초헌관을 모시고 사우에 들어가 축문을 쓰고, 축문 작성이 끝나면 축판에 넣어 향안 위에 올려놓는다. 다른 서원에서는 강당이나 사우 앞에서 축문을 작성한 후 초헌관에게 확인하고 사우 안에 둔다.

중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는 헌관

소수서원에서 헌관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사우의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으로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다른 서원에서는 사우 출입에 중문은 신도(神道)로 여겨 출입을 금하고,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동문으로 나오거나,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온다.

도동곡(道東曲) 낭독

소수서원에서는 문성공 신위 앞에 헌작(獻爵)한 후에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데, 이 서원에서만 행하는 의식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1541년(중종 36)에 지은 9장의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한 것이다.